9.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선출 방식 (수능 특강 p.159)

단락 분석

(1단락)

①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적이지 못하다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②따라서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다수 대표제와는 달리 비례 대표제는 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여 의석을 배분한다. ③정당이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이 낮아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줄 수 있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를 완화할 수 있다. ④또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⓪ 오늘 지문은 배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과한 추론 없이 내용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야하는 지문이야. 나는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히 풀어서 해설하고 있으니(특히나 오늘은 해설이 길어…), 오늘은 꼭 이 **분석 읽기 전에 스스로 먼저 읽고 문제 풀고** 오자. 그래야 공부하는 의미가 생길 거야!

① **비례 대표제**를 소개하고 있어. **다수 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한 방법이라고 하니, **정당의 득표율과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비례**한다는 것이 비례 대표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고, 또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이 비례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아직 알려주지 않았어. 요새 평가원에서도 지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을 친절하게 정의해주지 않고 넘어가는 패턴이 자주 보이니까 익숙해지자. 배경지식을 활용해서 이해하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 및 정보들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거야!(동시에 다 해낸다면 1등급..!)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에 대해 알려줄게. 다수 대표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정하는 선거 제도야. 예시로 같이 알아보자. 금은동이라는 동네의 국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를 거야. 투표용지를 보자.

금은동 주민 2,000명 중 1,100명이 투표를 했어. 그 중에 100명은 기권이나 무효표 처리돼서 유효한 투표수는 1,000!
투표결과,
기호 1번 230표 / 기호 2번 219표 / 기호 3번 234표 / 기호 4번 211표 / 기호 5번 106표
피자당 도민호 후보가 당선되었어. 이런 경우 피자당을 뽑은 234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는 모두 사표가 되어버려. 도민호 후보만 당선된 거니까. 유권자의 의사가 잘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지. 그리고 아무래도 소수당에 속하는 채식당 소속 의원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적겠지..?

이 다음에는 비례 대표제를 보자.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출해서 후보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들은 원하는 정당을 투표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이 배분되는 거지. 예시를 또 들어볼게. 만약 금은동이 하나의 선거구야. 의석 수가 5석! (우리나라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야. 예시처럼 권역(지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지는 않아. 일본 같은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어.)
투표 결과,
치킨당 500표, 햄벅당 170표, 피자당 150표, 떡볶이당 120표, 채식당 60표
득표율이 가장 높은 치킨당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배분받겠지? 그리고 치킨당에 비해 득표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당도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으니 유권자의 의사가 다수 대표제에 비해 더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자!

② 다수 대표제와 비례 대표제의 공통점은 **의석을 배분**하는 건가봐. 차이점은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 다수 대표제는 후보 개인의 득표수. 비례 대표제는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네. 여기서 **'~수' 와 '~율'**의 차이를 눈여겨 보면서 독해하는 것이 하나의 꿀팁이야. 그 차이를 이용해서 문제로 구현하기도 하니까.

③ 다수 대표제와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어. 그렇다면 당연히 선지에서 물어볼 거니까 체크해두자. 사표 발생이 낮아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점도 **비례 대표제의 특징이자 장점**임을 정리할 수 있겠지? 사표 설명은 아까 했고, 다수 대표제는 그 지역의 이익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들이 많아. 일단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 유권자들이 보통 자기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공약을 선호하니까. 이에 비해 비례 대표제는 애초에 정당에서 후보들을 선출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지니는 인물이나, 소외계층 출신 인물들이 나올 수 있어.

iBex Study 무단 배포 및 복제, 변형을 금지합니다. 공유할 경우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Legal Mind] EBS analysis

(2단락)

①비례 대표제는 모든 의석을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거나 전체 의석의 일부를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②비례 대표제는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③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수와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 명부를 정당이 제출하며 유권자는 후보 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된다. ④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최대 잔여 방식과 최고 평균 방식이 대표적이고, 기표 방식으로는 범주 투표 방식과 선호 투표 방식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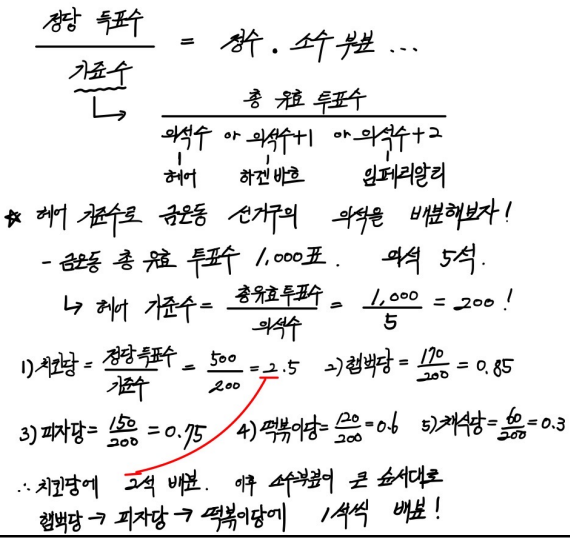
① 우리나라는 전체 의석 300석 중에 47석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혼합형 선거제**를 택하고 있어. 기표소에서 아까 봤던 투표 용지 2장에 모두 투표를 하게 되는 거지. (모든 의석을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방법은 **전면적 비례대표제**라고 부른다고 해.)
② 우리나라도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어.
③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를 설명하고 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정당이 만들어서 제출하고, 유권자는 후보 명단을 보고 후보에게 직접 투표하는 것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인 거야. 마치 주식과 펀드의 차이라고나 할까?(모르면 찾아봐~)
④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과, **기표 방식**을 소개하고 있어.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겠구나하고 예측해 볼 수 있겠지?

(3단락)

①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한 표가 갖는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원리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 등과 같은 기본 정보를 활용한다. ②최대 잔여 방식은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만큼의 의석을 배분하고, 배분되지 않은 의석은 몫의 소수 부분이 큰 정당부터 배분하는 방식이다. ③이때 활용되는 기준수에는 헤어 기준수,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임페리알리 기준수 등이 있다. ④헤어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선거구의 총 유효 투표수를 의석수에 2를 더한 값으로 나누어 얻은 몫의 정수 부분이다. ⑤그리고 각 몫의 소수 부분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기준수로 정한다. ⑥만약 한 선거구의 의석수가 5석이고 총 유효 투표수가 1,000표인 선거구에서 최대 잔여 방식을 적용하면 헤어 기준수는 1000/5=200,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는 1000/(5+1)=166.66... ⇒ 167, 임페리알리 기준수는 1000/(5+2)=142.85…⇒143이 된다. ⑦각각의 기준수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낸 몫이 각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달라진다. ⑧하지만 이 방식은 경우에 따라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의 역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최고 평균 방식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① 먼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부터 얘기하고 있어. **최대 잔여 방식**과 **최고 평균 방식** 모두 설명해주겠지? 한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원리 하에 의석을 배분해야 한대. 3단락을 훑어 보자. **숫자**가 좀 나와 있지? **계산**시킬 거야…각 정당의 득표수, 해당 선거구의 의석수에 표시 해놓자.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의석을 배분해야 해. 문제로 나올테니까.
② 최대 잔여 방식부터 어떻게 의석을 배분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계산문제! 식으로 정리하자.
③ 이어서 **기준수**를 구하는 방식도 설명해주려나봐. 세 가지 방식이 있대.
④ 1) **헤어 기준수** = 총 유효 투표수 나누기 의석수. 아까 금은동을 예시로 들면 유효투표수 1000표 나누기 의석수 5석이니까 기준수는 200!
2) **하겐바흐 비쇼프 기준수** = 총 유효 투표수 나누기 (의석수+1)
3) **임페리알리 기준수** = 총 유효 투표수 나누기 (의석수+2)
⑤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구하래. 나중에 문제풀 때 깜빡하고 계산 실수하지 말자!
⑥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 어렵지 않지?
⑦ 위 3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수가 달라진대.
⑧ 최대 잔여 방식의 단점을 제시하면서 최고 평균 방식으로 설명을 이어가려나봐. 최고 평균 방식에서는 '**제도의 역설**' 이라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제도의 역설'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감이 있지? 아마 <보기> 문제에서 가상의 상황에 적용해 의석 배분을 직접 시키면서 제도의 역설이 나타나는 상황을 실제로 제시할 수도 있어.(고난도 문항..) 아까 들었던 예시로 이해해보자. 치킨당이 유효 투표수 1,000표 중 500표를 받으면서 50% 득표율을 달성했잖아? 하지만 헤어 기준수를 적용해서 의석수를 배분했더니 득표율(50%)에 못미치는 2석만 배분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헤어 기준수로 위에 들었던 예시 상황을 계산해서 의석을 배분해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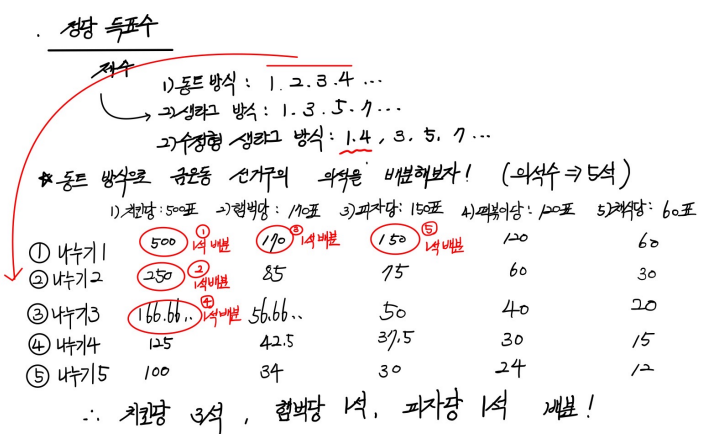
iBex Study 무단 배포 및 복제, 변형을 금지합니다. 공유할 경우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4단락)

①최고 평균 방식은 각 정당의 득표수를 기준수 대신 제수로 나누어 얻은 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②사용하는 제수에 따라 동트 방식, 생라그 방식, 수정형 생라그 방식 등이 있다. ③동트 방식은 제수가 1, 2, 3, 4, ...이다. ④생라그 방식은 제수가 1, 3, 5, 7, 9, ...이고, 수정형 생라그 방식은 생라그 방식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제수가 1.4인 것만 다르고 나머지 제수는 동일하다. ⑤어떤 방식의 제수를 정하더라도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⑥만약 A 정당, B 정당, C 정당이 각각 485표, 290표, 140표를 획득했는데, 동트 방식으로 의석수를 3석 배분한다고 가정해 보자. ⑦첫 번째 제수인 1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몫은 각각 485, 290, 140이므로 가장 큰 값을 가진 A 정당에 먼저 의석을 배분한다. ⑧그리고 두 번째 제수인 2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어 얻은 몫은 각각 242.5, 145, 70이되는데, 이 몫들을 첫 번째 제수인 1로 나누어 얻은 몫 중에서 이미 의석 배분에 활용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몫들과 비교한다. ⑨이때 가장 큰 몫이 290이므로 B 정당에 두 번째로 의석을 배분한다. ⑩다시 세 번째 제수인 3으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누고, 이때 얻은 각각의 몫 161.66..., 96.66..., 46.66...을 이미 의석 배분에 활용된 몫들을 제외한 나머지 몫들과 비교한다. ⑪이때 가장 큰 몫이 242.5이므로 A 정당에 세 번째로 의석을 배분한다. ⑫이렇게 제수에 따라 나누어 놓은 몫 중에 의석이 배분된 몫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몫들을 계속 비교하며 가장 큰 몫을 가진 정당의 차례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⑬세 가지 방식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각 정당이 얻는 의석수는 달라진다. ⑭제수의 간격이 작을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 내는 값인 몫의 간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득표수가 적은 정당에는 불리하다.

① **최고 평균 방식**은 분모를 기준수에서 **제수**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다. 제수가 뭔지 설명해주겠지?
② 이번에도 또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어. 대체 무슨 문제가 나오려고 이러는 걸까..?
③ 어라, 제수는 수열이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집중해서 봐야겠어.
④ 생라그 방식과 수정형 생라그 방식도 설명해주고 있어.
⑤ 이제 제수를 이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알려줄 건가봐.
⑥ ~ ⑬ 예시를 들어 최고 평균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 나는 동트 방식을 활용해서 위에 예시 들었던 금은동의 의석을 배분해볼게. 아, 그리고 3단락 ⑧문장에서 제시한 '제도의 역설' 이 왜 최고 평균 방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지도 의석을 배분해보면서 체크하면 좋겠지?
⑭ 제수의 간격이 작을수록, 즉 동트 방식은 득표수가 작은 정당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래. **'~수록'** 이라는 비례를 나타내는 표현은 역시 선지로 물어볼거야.



iBex Study
무단 배포 및 복제, 변형을 금지합니다. 공유할 경우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5단락)

①범주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이고, 선호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 명부 가운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②범주 투표 방식은 정당에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배분하기 때문에 정당의 권한이 크고 정당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유권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③선호 투표 방식은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있는 후보 중에서 유권자가 당선을 원하는 후보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선거 원칙에 더 가깝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보는 결국 정당이 제시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① 이번에는 **기표**(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방식인 **범주 투표 방식**과 **선호 투표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 범주 투표방식은 정당에서 후보를 추려서 순위를 정해 후보 명부를 만들어.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 명부를 참고한 후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하는 거지. 만약 치킨당에서 후보 4명을 뽑았는데 의석을 2석만 배분 받았으면 1,2순위 후보만 선출되는 방식이야. 이해되지? 선호 투표 방식은 유권자가 치킨당을 기표하면서 동시에 치킨당이 추천한 후보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따로 고를 수 있어. 치킨당 하계림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 치킨당이 1석을 배분 받을 경우 하계림 후보가 비례 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는 거야! (네덜란드는 비례 대표 후보자가 1300명이 넘어서 투표 용지 사이즈가 무려 A0사이즈..!)
② 범주 투표 방식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네. 정당의 권한이 크고 리더십이 강화된다는 점이 장점. 유권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단점. 또 예시…만약 내가 평소에 치킨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치킨당에 투표하고 싶어. 근데 치킨당에서 후보로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 내 어렸을 적 원수가 있다면? 혹은 의석수가 5석인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피자당 후보 중 3순위인 거야. 피자당은 의석 1석만 배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주 투표 방식으로는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③ 선호 투표 방식은 유권자의 의사가 좀 더 반영돼. 하지만 범주 투표 방식이든 선호 투표 방식이든 후보는 결국 정당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유권자 의사의 영향력은 미미하대.

(6단락)

①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유형을 달리할 수 있지만, 결국 명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와 국회 의원 사이의 유대가 약해지고 국회 의원이 정당의 정책에 구속받을 가능성이 많다. ②그리고 이 방식으로만 국회 의원을 모두 선출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화된다는 측면이 있다. ③하지만 다수 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고, 국회 의원이 전체 국민의 대표라고 보는 대의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① 마지막 단락.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어. 사실 완벽한 투표 방식은 존재하기 힘들어. 이전 문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례 대표제는 정당의 힘이 세기 때문에 유권자와 국회의원 사이의 유대가 약해지고 국회 의원이 정당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대.
② 지역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도 약화된대. 1단락에서 말했던 다수 대표제는 지역 주민이 후보를 직접 뽑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지역 주민의 표를 얻기 위해 지역 현안에 집중한 공약을 내걸게 된다고 했던 것 기억나지? 또 지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당이 제시한 후보가 정당에 돈을 내고(선거법 위반) 1순위를 받아 결국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꽤 있다고 해.
③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의 **의의**를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 1단락에서 말했던 다수 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대의제, 즉 간접 민주주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오늘 해설이 정말 길었지? 학생들에게 선거 관련 지문은 배경지식 없이 문제는 풀리긴 하지만 이해는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자세하게 썼는데 읽고 이해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iBex Study 무단 배포 및 복제, 변형을 금지합니다. 공유할 경우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